시민 함께하는 팔관회, 명상걷기대회로 시작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9월 27일 북항친수공원서

시민 참여로 전통의례→현대축제
성악·스트릿댄서 무대 등 다채
팔관회 본행사 10월 25일~27일
"호국 · 통합 전통, 공동체 회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의 가을밤, 시민들이 함께 걷고 호흡하며 천년 전통 팔관회의 서막을 연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는 9월 27일 오후 6시 북항친수공원에서 '팔관회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걷기대회는 오는 10월 범어사에서 봉행되는 팔관회 본행사에 앞서 마련된 시민참여형 축제다.

팔관회는 고려 시대 국가가 주관한 대표 불교의식으로 팔재계 실천을 통한 인간성 회복, 국운융성을 기원하는 호국의례였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팔관회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한다.

팔관회가 호국과 사회통합의 가치로 이어지는 것처럼, 명상걷기대회로 개인의 성찰과 공동체의 회복을 이뤄내자는 뜻에서다.

팔관회는 현재 부산불교연합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의례로, 불교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호국 생활문화 축제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걷기대회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식전공연과 전 참가자가 함께하는 명상, 북항 수변산책로 걷기, 어울림 한마당으로 꾸려진다. 테너 정필윤, 소프라노 박나래, 스트릿댄서(BAEKEUI) 등이 무대에 오르며 부산솔리스트앙상블과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도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안마의자와 TV, 공기청정기 등 1000만원 상당의 경품도 추첨을 통해 주어진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9월 27일 오후 6시 북항친수공원에서 '팔관회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열린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행사 모습.

팔관회 본행사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열린다. 선재동자 수계법회, 호국기원법회,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 수계법회, 팔관회 전통 의식 재현 등이 펼쳐진다.

선재동자 수계법회는 〈화엄경〉의 선재동자를 본받아 어린이들이 팔재계를 받고 청정한 삶을 서약하는 의식으로, 불교 인성교육의 의미를 담는다. 호국기원 법회는 나라와 시민의 안녕을 발원하는 자리로, 팔관회가 지닌 호국의 전통을 계승한다.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 수계법회는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여덟 가지 계율을 다시 서약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정진을 다짐하는 핵심 의식이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팔관회의 의미는 과거의 호국과 통합에서 오늘날 인간성 회복과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됐다"며 "걷기와 명상으로 시작해 범어사 본행사로 이어지는 이번 팔관회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작도와 반야용선, 디지털로 되살아난 통도사 벽화

'눈으로 보고 손에 담다' 개막
10월 29일까지 통도사박물관서



특별 전시 '눈으로 보고 손에 담다'에서는 통도사 건축물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사진은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명부전 봉황도 벽화.

까치가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꼬리를 흔든다. 극락으로 향하는 용선은 파도를 가르며 힘차게 나아간다. 전각 벽에 숨겨져 있던 옛 그림들이 빛과 영상으로 되살아나 관람객 앞에서 살아 움직인다.

영축총림 통도사 벽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특별 전시 '눈으로 보고 손에 담다'가 개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이번 전시를 8월 15일부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고 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통도사 전각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해 관람객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극락보전, 대웅전, 관음전, 명부전 등에 그려진 벽화는 불교 교리와 전설, 자연과 동물, 꽃과 나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건물 구조상 가까이서 볼 수 없거나 조명이 부족해 세부 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통도사와 양산시는 이러한 관람 한계를 해소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도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전시를 마련했다.

눈길을 끄는 대표작은 명부전 벽화 '호작도'와 극락보전 벽화 '반야용선'이다. 호작도는 액운을 막는 호랑이와 희소식을 전하는 까치를 함께 담아낸 민화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동물 캐릭터의 모티브로도 알려져 있다. 반야용선은 파도를 헤치며 극락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담아 불교적 구원관을 상징한다. 전시장에서는 이 두 벽화를 비롯한 30여 점의 작품이 영상 효과와 색감 복원으로 재탄생해 생동감 있게 소개된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관람객이 홍보나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통도사 건축물과 벽화 이미지를 담은 '렌티큘러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는 각도에 따라 전각 사진과 벽화 그림이 교차해 보이는 방식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한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통도사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축제와 미디어아트가 더해져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매력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국 학생들, 통도사서 사생실력 겨룬다

제4회 통도사 '사생실기대회'
8월 20일~9월 30일 접수
10월 18일, 경내 일원서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생실기대회가 열린다. 제4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는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통도사 경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생을 통해 창의성과 표현력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발표되며,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인원 제한은 없으며, 접수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도사 홈페이지(www.tongdosa.or.kr) 또는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 홈페이지(yangsanart.cafe24.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ysart@kakao.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5명과 위촉 심사위원 3명이 참여해 주제 표현력, 구상·구도, 창의성,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상자는 10월 24일 통도사와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29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박물관·부산대,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발전 · 혁신 목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과 국립부산대(총장 최재원)가 8월 27일 성보박물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혁신과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 사업에 나선다.〈사진〉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교문화·전통예술·명상과 인문학 연구를 연계해, 지역 인문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정오 스님은 "부산대와 협력으로 시민들이 인문학과 불교문화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넓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백중 회향 맞아 자비의 쌀 나눔

27개 복지기관 통해 4000kg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백중 회향을 맞아 8월 26일 경내 일원에서 '2025년 제4차 자비의 쌀 나누기'를 개최했다. 이날 범어사는 부산·양산 지역 27개 복지기관에 백미 총 4000kg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후원은 백중 회향의 공덕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쌀은 각 기관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백중 회향의 뜻을 지역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자비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출발일 : 2025년 10월 19일(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310만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미륵도량 설두산 +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천수-무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서안-인천
★ 체크포인트 : 국내선(2회), 고속열차(1회) 포함★
▶동참금 :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